첨부 1

신앙 선서

(Professio Fidei, 교회법 제833조 5-7항; 신앙교리성 1989년 3월 1일)

본인 ______________은/는 신경에 포함된 모든 교리를 예외 없이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또한 저는 성경과 성전으로 전해 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들과, 교회가 성대한 판정이나 통상적 보편 교도권으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믿을 교리라고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또한 저는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리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또 교황이나 주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는 비록 결정적 판정으로 선포할 뜻이 없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도권의 행사이므로 저는 그 가르침에 의지와 지성의 양심적 순종으로 따르겠습니다.

장　　소: ________________　　　날　　짜: ________________

선 서 자: 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